450년전 광명농악 흥을 되살린다

남사당패와 같은 화려함을 찾긴 힘들다.
때문에 현대인들에겐 점점 시선이 멀어져 간다.
하지만 그 어느 농악보다 친근하다.
옛 시골마을에서 보던 정겨움과 절로 나는 흥은
보는 이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지명과 같은 그 '밝은 빛'은
잠깐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숨결 속에 항상 밝혀져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9>

제20호 광명농악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보유단체·시민국악단, 보유자·상쇠 유인필, 전수조교·상쇠 임웅수)의 특징은 무엇보다 '농악'의 태고적 의미에 있다. 농촌에서 집단노동이 있을때 일의 효율을 높이고 명절 등의 시기에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해왔던 농악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따라서 기교나 현란함 보다는 공동체적 교감이 우선이다.

상쇠 임웅수씨(43·한국국악협회 광명지부장)는 이를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광명농악은 타 지방의 농악에 비해 아마추어적으로 보인다고들 합니다. 때론 발전적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소릴 듣기도 하죠. 하지만 전통문화, 특히 문화재란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덜 세련되고 투박하지만 질박스런 느낌이 바로 광명농악의 매력입니다."

농악의 기원은 문헌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상고시대 제천의식에서 남녀가 가무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시기를 기원으로 보고 있다.

광명농악은 450여년전부터 현재의 철산동, 소하동의 전신인 철산리와 소하리가 중심이 돼 이어져 왔다. 이웃마을인 학온동과 광명7동 부근에서도 자주 행해졌다. 이 마을들의 공동점은 바로 전형적인 농경생활 터전이었다는 것. 자연스레 두레 풍물이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광명시에서는 예로부터 구름산을 배경으로 도당굿을 벌여 왔는데 굿을 하기 전에는 마을의 각 세대를 돌며 쌀과 돈을 거두어 가는 걸립굿 형태의 농악이 벌어졌다. 도당굿의 전·후로 굿의 흥을 돋구는 것은 물론이고 굿이 끝난 뒤 벌어진 잔치에서 주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농악이 담당했다.

광명농악의 복원은 1991년 3월, 당시 한국국악협회 광명지부장이자 시민국악단을 창단한 이춘목씨가 서울의 '마당풍물놀이'란 단체에서 공연활동 중이던 현 지부장 임씨와 의기투합하며 시작됐다.

"광명은 거점상 서울의 위성도시에 속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한달에 20%정도가 오고가곤 하죠. 따라서 광명 지역에서 전하는 전통 농악을 찾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 부터 정착한 어르신들을 만나 뵈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

임씨는 동네 노인정을 비롯해 시내와 동떨어진 마을 구석구석까지, 광명 지역 일대를 찾아다니며 흩어져 있던 농악의 형식과 가락들을 모두 취합해 재편성 했단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인필옹과 지금은 고(故)인이 된 구형서옹 등과 인연을 맺었고 94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대상과 9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종합최우수상을 연거푸 거머쥐며 빛을 발했다. 이같은 내력을 인정받아 광명농악은 97년 9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광명농악의 구성을 살펴보면 용기 1개와 농기 1개, 영기 2개, 오방기 5개, 태평소 2개, 꽹과리 4개, 징 2개, 장구 6 8개, 북 4개, 채상소고 12개를 비롯, 잡색(농악 판에서 정해진 틀을 가지지 않고 자유자재로 흥을 돋구는 사람들)으로는 양반 1명, 아낙 1명, 포수 1명, 피조리 6명으로 되어 있다. 의상은 광명을 포함한 경기·충청도 지방 모두 흰색 하의에 상의는 파란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빨강, 노랑, 파랑)를 두른다.

광명농악의 순서는 우선 굿머리와 인사굿을 시작으로 돌림법구가 이어진다. 돌림법구는 풍물꾼이 밖에서 원을 만들고 안에는 소고잽이가 놀이를 벌이는 것으로 소고잽이의 허공잽이가 일품이다. 양쪽으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가락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두번째는 당산벌림으로 일자로 길게 서서 'ㄷ'자형으로 벌려 선다. 상쇠가 혼자 중앙에 나와 잠시 상쇠놀이를 하기도 하며 쇠놀이가 끝난 뒤 법구잽이(소고를 들고 상모를 돌리는 사람)를 불러들여 다양한 법구놀이를 펼친다. 또 잡색을 불러 같이 놀아주고 놀이의 끝은 멍석말이로 맺는다.

세번째는 오방진(칠채)인데 동서남북 중앙 다섯 마당으로 펼쳐지는 놀이다. 칠채가락을 쓰며 중앙에서 놀이가 이어질 때는 육체(동이삼채)가락으로 넘기고 다시 자진마치를 연결해 두마치로 맺는다. 법구잽이의 자반 뒤집기가 일품.

네번째는 가세 벌림으로 상쇠가 원을 풀고 나오면 뒤따르는 풍물잽이들이 두 줄로 서서 풀어져 나와 양쪽으로 갈라선다.

다섯번째는 사통맥이로서 사방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을 만들어 놀이를 벌이고, 자진덩더궁이 가락을 치는 좌우치기가 여섯 번째다.

일곱번째는 쩍쩍이인데 상쇠가 쩍쩍이 가락을 치면 풍물잽이와 법구 등 모두 따라서 갠지갱 갠지갱 개갱하고 허리를 굽혀 춤을 추는 놀이로 잔가락을 많이 쓰는 것이 특이하다.

마지막 여덟번째는 모든 판굿을 마치고 상쇠놀이, 법구놀이, 열두발 등 각 개인의 놀이를 벌인다. 대미를 장식하는 무등놀이를 볼 수 있으며 맨 마지막에는 하나의 원을 만들어 인사굿을 치며 빠져나간다.

임씨는 이러한 형태의 광명농악 특징을 크게 세가지로 설명한다. "가락에 힘과 박진감이 넘치고 40여분간 계속되는 놀이의 형태는 자주 바뀌어 지루하지 않으며 진정한 농사 놀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광명농악의 오늘날 또 다른 특징이라 하면 단연 계승적인 측면에 있다. 98년 광명농악보존회 설립을 필두로 같은해 광명시에 위치한 충현고등학교를 광명농악 전수학교로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농악의 맥을 전하고 있다.

'광명농악'…기교·화려함 보다 '공동체적 교감' 우선
1991년 3월 이춘목·임웅수씨 의기투합 '복원' 나서
現 광명 '충현高' 전수학교 지정…청소년들 脈 이어

또 2000년에는 광명시내 18개 동에 풍물패를 조직,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악을 전파시키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동별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뿐만아니다. 매년 가을에는 광명농악 발표회를 열어 학생과 일반인, 광명농악보존회 등 전 광명시민이 참여하는 농악축제로 만들고 있으며 꾸준한 해외공연을 통해 우리 농악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광명농악의 보급은 단순히 전통놀이를 전승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두레 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의식, 이웃과 이웃이 화합하고 가족애가 살아 숨쉬는 우리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임씨의 말은 곧 오늘날 광명농악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인 듯 했다.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